

고흥군, 모바일 활용 청년셀러 양성 교육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영상제작 온라인 판매 강의 수강료 무료...지역 청년 대상 내달 14일까지 신청

고흥군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청년셀러(판매자)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청년셀러 양성교육은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이나 가공 상품 등을 영상

로 제작하여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이다.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4일까지 수강생 45명을 모집해 5월부터 고흥군 어울림센터

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강의 내용은 셀러의 기본 소통능력, SNS마케팅과 스마트스토어 매출상승 판매전략 등 이론과 쇼핑호스트와 함께하는 방송실습, 1인 1상품 PT 및 실전 소통라이브 등 실습을 병행한다.
수강 신청서는 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내려 받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군민 소득 3천만원 시대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올해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청년셀러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청년 드론스쿨, 신개념 정리수납전문가 등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김택영 기자



순천시, 천만그루 나무심기 행사 개최

조곡동 일원 90여명 참석 4,000㎡에 200여 주 반려나무 심기

순천시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숲과 나무로 숨쉬기 좋은 순천을 만들기 위해 최근 조곡동 일원에서 반려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허석 순천시장을 비롯해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로타리클럽 회원, 라일락 봉사단, 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의 숲 부지 4,000㎡에 200여 주의 나무를 심었다.

나무심기에 앞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 2기 40여 명의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해금연주 등 식전 공연도 함께 진행되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원활한 식재 작업을 위해 100명 이내의 사전 신청을 받아 반려나무를 식재하였다. 허석 시장과 주민들은 동백, 이팝, 산딸기나무 등 식재된 반려나무에 본인 이름표를 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키우게 된다.
허석 순천시장은 "천만그루의 나무들은 세계 속의 생태수도 순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되고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을 담다’ 농·특산물 꾸러미 출시

보성군 대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한 상자

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활력을 주고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해 보성군의 대표 농·특산물로 구성된 ‘보성을 담다’ 꾸러미 상품을 출시한다.
‘보성을 담다’는 두 가지 구성으로 선보이며 1호는 4만 원, 2호는 6만 원에 판매된다. 상품구성은 1호(8종) 오감꽃차, 녹차비누, 녹차미인보성쌀, 혼합15곡, 누룽지, 김자반, 우전티백, 녹차라떼로 꾸러였으며,

2호(10종)는 1호에 우치올벼쌀과 꿀 등 2가지 상품이 추가된다.
특히, 누룽지는 사회적 협동조합 보성지역자활센터에서 녹차의 향기 브랜드 쌀을 이용해 방부제, 첨가제, 색소를 쓰지 않고 만든 자연식품이며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지역 참여 주민들의 자립·지활 기금으로 쓰인다.
상품 구입은 보성군 농특산물 쇼핑몰 ‘보성물’(http://mall.boseong.go.kr 포털사이트에서 ‘보성물’검색)



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택배비는 무료다. 또한 신규회원 5,000원 포인트 적립, 상품 후기 작성 시 1,000원 포

인트 적립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셰프의 팔도밥상’ 농산물 홍보

이원일·오세득 셰프 등 출연...네이버 쇼핑 라이브 통해



광양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 애호박과 토마토를 홍보하기 위해 스타 셰프들과 ‘셰프의 팔도밥

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방송인 광희, 이원일, 오세득 셰프, 국악인 김나니 등이 출연해 애호박과 토마토 농가를 찾아 농산물 수확 체험을 하고, 농산물을 이용해 요리하며 광양시 농산물을 홍보한다.
이번 방송은 4월 3일 오후 6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광양시의 품질 좋은 애호박과 토마토를 실시간으로 판매할 예정이고, 방송을 통한 구매 고객을 위해 할인쿠폰 지급과 각종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탁영희 농산물마케팅과장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비대면 판촉으로 기획한 이번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맛과 품질이 우수한 광양시 정정농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 기자

(사)여수수산인협회, 내일

‘수산인의 날’ 간담회 개최

수산업·어촌 소중함 알리고 수산인 긍지·자부심 고취

오는 4월 1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하기 위해 수산인의 날 기념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기념 간담회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타개하고 수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여수수산인협회, 업종별 협회장, 지구별·업종별 수협장 등 현장 참석인원을 60명 이내로 제한해 간소하게 진행한다.
노평우 (사)여수수산인협회장의 기

념사를 시작으로 전남도-경남도 해상경계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협회원 간 해상풍력 발전허가 관련 어업인 대응 방안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권오봉 여주시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제10회를 맞이하는 수산인의 날을 축하하며, 5년간 지속되었던 경상남도도와 해상경계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 수산인들의 노고를 치하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수산인협회는 1990년 6월 1일 수산인의 기본권 보장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회원 수는 1,100여 명이다.
여수=오상호 기자

순천시 “쓰레기 불법 투기 꼼짝 마”

이동식 CCTV 설치 운영

순천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올해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7대를 설치한다.

시는 그동안 고정형 CCTV(202대)와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는 주민들의 불법투기지역 CCTV 설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동형 CCTV 총 38대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시는 추가 설치되는 이동식 CCTV와 함께 통합관제센터의 방범용 CCTV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쓰레기 무단투기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형성되는 상습투기지역에는 불법 투기가 해소된 장소에 설치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이전·설치하여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해 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역별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불법투기 예방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경고판, 현수막 및 스티커를 제작·설치하는 등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계도·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